

허진호 영화감독 전주국제영화제 찾는다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선정... 허진호 감독 선정 3편 · 연출작 2편 총 5편 상영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영화감독 허진호(사진)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는 색선의 프로그래머로서 전주 출신으로 누구보다 전주국제영화제와 잘 어울리는 영화감독 허진호다.
첫 장편 연출작 『8월의 크리스마스』(1998)의 영화적 흥행과 예술적 평가 모두 성공해 화려하게 데뷔한 영화감독 허진호는 『불날은 간다』(2001), 『외출』(2005), 『덕혜옹주』(2016), 『천문: 하늘을 묻는다』(2018) 등을 연출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올해도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된 『보통의 가족』



『(2022)이 개봉을 앞둔 가운데 그에 앞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상영작은 프로그래머로서 허진호 감독이 극장에서 처음 본 본인의 연출작 2편, 총 5편이다.
프로그래머로서 선정한 3편은 소년 시절의 허진호를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명의 영화인이 되는 것에 깊은 영향을 준 영화들로 허진호 감독이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 『바보들의 행진』(하길중, 1975), 영화에 매료되는 계기였던 『파리, 텍사스』(빌 벤티스, 1984), 영화의 이미지와 서사의 관계를 깨닫게 된 『동경 이야기』(오스 야스지로, 1953)이다.
3편의 영화 외에도 허진호 감독 하면 누구나 떠올릴 『불날은 간다』(2001)와 『외출』(2005)도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어 이번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한편, 허진호 프로그래머는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상영작의 극장 상영 직후 게스트들과 관객들이 만나는 『스페셜클래스』의 모더레이터로도 활약한다. 총 5회 진행될 이번 『스페셜클래스』는 상영작 별로 1회씩, 상영 종료 후 총 60분 진행될 예정이다.
허진호 감독은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색선 서문에서 "나의 사적인 역사를 거슬러 선택한 영화들을 2024년에 한 자리에 소환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올봄 전주에서 나와 같은 극장에 앉아 이 영화들을 보게 될 관객들이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기 전 짧은 고요 속에서 속으로 '영화가 온다! 영화가 온다!' 하고 외쳐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발달장애인 건강한 식생활 함께 돕는다

한국전문문화전당-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문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17일 원장실에서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항미)와 '건강한 집밥 요리, 직장인 취미 요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기능을 회복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음식문화 배움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체험 등 기획 및 공동추진 △양 기관의 공동발전 추구 등이다.
이항미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원장은 "전당은 지역의 복지 사각지



한국전문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17일 원장실에서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항미)는 지역사회 기능을 회복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배움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올해도 3無 착한 영화제 연다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간식 부스 참여 사업자 22~24일 모집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2024. 6. 5.~9.)』 개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무주군은 영화제와 동행할 간식 부스 참여 사업자(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6월 9일 영화제 마지막 날을 제외한 8일까지 4일간(10:00~21:00 / 단, 6. 5. (수), 13:00~21:00) 무주를 예체문화관 광장 내에서 총 8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업체)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모집공고 4. 8.~21.)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으로 방문·접수(제출서류: 무주군청 누리집 알림마당)·공시사항 참고)하면 된다.
대상은 접수일 전 사업자(업체) 소재지가 무주군으로 돼 있으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무주사랑상품권 가맹 등록 사업자(업체), 개별부스에서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은 신청 사업자(업체)를 대상으로 △메뉴에 무주지역과 산골영화제 특성을 반영했는지, △적절한 가격을 책정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기타 위생 및 메뉴 서비스 품질의 적정성, △공공이용 기준 3년 이내 행사 경력(횟수)과 자격증 등의 전문성 등을 심사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부스에서는 지정된 다용도기(자부담 50%)를 사용해야 하며 1회용품 사용은 일절 금지된다. 판매 물품의 메뉴와 가격은 자율적으로 하되 단일 메뉴 가격은 최대 1만 원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참가비는 50만 원으로 전액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간식부스 모습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기부금 영수증 발행)된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이송하 과장은 "올해도 바가지요금·1회용품·안전사고 없는 착한 영화제를 개최해 지역특색이 무주군의 선한 영향력을 전국에 펼칠 것"이라며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를 빛내면서 좋은 뜻을 함께 펼칠 사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산골영화제가 무주분들의 해의 하이라이프라는 생각으로 좋은 영화,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맛있는 먹거리로 방문객 맞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무주군 일원(무주읍 등나무운동장, 예체문화관, 덕유산야영대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재미와 감동 가득한 영화들과 함께 무주다운 가득한 공연과 전시, 토코 등 각종 이벤트를 즐겨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순창발효관광재단,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7일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이사 선운숙)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순창발효관광재단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운 대표이사, 선운숙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관광정책 및 사업관련 정보 공유·활용,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공동마케팅, △양 기관 협력사업



추진 및 모범사례 적극 홍보 등이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선점할 수 있는 미식, 역사, 치유 등 관광콘텐츠의 고도화를 논의했다.
선운숙 대표이사는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전북자치도 문화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며 "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재단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순창의 미식관광, 치유관광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자치도의 지역관광 콘텐츠를 발전시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연지아트홀, 25일 아동극 '피노키오의 모험' 무료 공연

정읍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연지아트홀에서 문화가 있는 날 아동극 '피노키오의 모험'을 무료로 공연한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읽었던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유명한 동화다.
(주)극단 코스모스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제페도 할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통해 소통해지기 쉬운 가족 간의 사랑을 담은 뮤지컬이다.
이번 공연은 공연 시작 30분 전에 선착순 무료(전체관람가)로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다담' 장윤희 여자 배구 감독 초청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개최한다.
4월 다담 이야기 손님은 '여자 배구계의 전설' 장윤희 감독으로, 그녀의 배구 경력과 인생 경험을 통해 관객과 깊은 소통을 나눌 예정이다. 우리 음악 즐기기 코너에는 팝소리 그룹 심풀이 참여한다.
장윤희는 한국 배구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재는 여자 배구 유스 국가대표팀과 서울 중앙여고 감독으로 활동 중이며, 대중적인 판소리를 지향하는 심풀이는 △상여가 실은 청춘 △나빌레라 △해아해아를 통해 관객의 마음을 울고 채워주는 따뜻한 음악을 선보이고, 전주MBC 독서운 아나운서가 진행, 공연 1시간 전부터



'차가 있는 시간'을 갖고 공연을 기다리는 여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연장 로비에서 차와 다과를 제공한다.
관람은 무료이고,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 카카오톡 채널(국악원 친구추가), 전화(063-620-2329)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호를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